나주시, '㈜아이아이에스티' 스타기업 선정·지원

전남테크노파크와 업무협약…지정서 · 현판식 교부

시제품 제작 · 경영컨설팅 등 6개 분야 맞춤형 지원

나주시와 (재)전남테크노파크(전남TP)는 잠재력을 갖춘 유망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나주시 스타기업'에 '㈜아이아이에스티'(대표 서범석)를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양 기관과 ㈜아이아이에스티는 지난 6일 시청 이화실에서 스타기업 업무협약을 체결, 지정서 및 현판식 수여식을 진행했다.

협약식에는 정찬균 나주부시장, 이상엽 전남TP단장, 서범석 대표를 비롯한 기관·기업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나주시 스타기업은 지역 대표기업 육성을 목표로 기술 경쟁력과 성장 잠재력을 갖춘 관내 유망 중소기업을 선정해, 기술개발·마케팅·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시는 지난 2011년부터 스타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전남TP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지금까지 총 13억3000만원(연간 1억원)을 출연했다.

나주 혁신도시(빛가람동)에 위치한 ㈜아이아이에스티는 CCTV, 지능형안전카메라, 전고체배터리 등을 생산하는 업체다.

스타기업 선정을 통해 시제품 제작, 마케팅, 정보화, 인증, 지적재산권, 경영컨설팅 등 기업 경쟁력 강화, 판로 확보를 위한 6개 분야 맞춤형 지원을 받게된다.

정찬균 부시장은 "스타기업 육성을 통해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도모하고 글로벌 기술경쟁력을 갖춘 지역 대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나주시는 지난 2011년부터 스타기업 18개사, 스타기업 지정 앞 단계인 pre스타기업 23개사를 운영하고 있다.

기동취재본부

장성 황룡강변에 파크골프장 완공

황룡면 월평리 일원 9홀 규모… 군민 건강 증진·화합 도모

장성군 민선7기 공약사업 가운데 하나로, 지난해 11월부터 착공에 들어갔던 황룡강 일원 파크골프장 조성 공사가 최근 완공됐다. 현재 잔디 생육을 위해 골프장 이용을 부득이 제한하고 있으며, 생육 기간이 지나는대로 본격적인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 생활SOC 사업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 대상에 선정된 장성군은 이듬해부터 황룡면 월평리 일원에 파크골프장을 짓기 시작했다. 총 면적 9829㎡에 9홀 규모로, 국비 포함 총 5억 1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강변 공간을 최대한 활용한 자연친화적 시설로 설계된 점이 특징이다. 이용자들에게 황룡강이 어우러진 수려한 경치를 선사하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공사 기간 중에는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성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군은 파크골프협회와 동호회 회원들을 상대로 총 8회에 걸친 사업설명회와 협의를 진행하고, 회의 내용을 공사 과정에 적극 반영했다.

기동취재본부

화순군, 장마철 대비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가축분뇨·폐수 무단방류 등

화순군은 장마철 집중호우 시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오는 8월까지 특별감시·단속 활동을 한다고 밝혔다.

군은 ▲상수원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지역 ▲최근 2년 민원 발생 및 반복 위반 사업장 ▲가축분뇨 및 폐수 불법 배출행위 ▲수질오염 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방류수 배출 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가벼운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관련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리거나 사법조치를 의뢰할 방침이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장 자체 점검 협조 요청 및 사전홍보, 사업장 집중감시·단속, 집중호우 피해 사업장 기술지원까지 총 3단계 방식으로 진행한다.

집중호우로 시설이 파손돼 정상 운영이 어려운 사업장에는 전남녹색환경지원센터의 전문 인력을 기술지원해 사업장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장마철을 틈타 오염물질을 무단배출하는 사업장이 없는지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며 "각 사업장에도 적극적으로 홍보와 계도 활동을 펼쳐 환경오염 사고에 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화순=박순철 기자

구례군,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 열기 '후끈'…자연친화적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 운영

구례군은 마산면에 위치한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에서 자연친화적 재료를 활용해 어린이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킬 체험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군이 운영하는 체험 프로그램은 '목재교구를 이용한 우리 집 문패 만들기'와 아이들의 오감능력 및 창의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점토 이용 동물·곤충 만들기' 프로그램으로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을 방문하는 가족 단위 관광객과 어린이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다.

이 체험 프로그램은 인기가 좋아 인근 전북 남원시, 전남 광양 · 순천·담양 및 구례군 관내 초등학생과 어린이집 학생들이 매주 방문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더불어 전시관 관람 및 VR체험 등 다양한 전시체험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다.

구례군 관계자는 "어린이들이 친환경적인 체험과 백두대간의 역사를 배우고 익히면서 따뜻한 감성을 키우고 안정감을 되찾게 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며, "어린이들이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에서 자연과 역사를 배우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유익한 체험프로그램 개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구례=박진호 기자

담양군,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 추진

취사·쓰레기 투기 행위 등

담양군은 코로나19 확산 영향에 따른 여름 휴가철 방문 휴양객 급증으로 산림 내 위법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내달 31일까지 군, 12개 읍·면 합동반을 편성해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특별단속은 휴가철 산림 불법 형질변경, 무단점유·훼손 등 불법행위를 단속해 산림을 보호하고, 산림사범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한 경각심 고취 건전한 산림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산간 계곡 주변 야영시설을 중심으로 불법 취사행위, 오물·쓰레기 투기, 임산물 불법 굴·채취, 사방댐 물놀이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불법행위 적발 시 산림관계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사법처리 등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며 계곡을 중심으로 휴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홍보활동과 단속을 펼치겠다"며 "쾌적한 산림환경을 위해 지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곡성군, 불합리 자치법규 54건 연내 정비

곡성군이 불합리한 자치법규 54건을 연내에 정비한다고 밝혔다.

곡성군은 올 4월부터 449개의 자치법규(조례 329, 규칙, 70, 훈령 48, 예규 2)에 불합리한 규정이 없는지 조사해왔다. 법령에 근거 없이 자치법규에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지, 집행기관과 의결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어긋나는지 등을 살펴 불합리한 부분이 발견되면 바로잡기 위함이다.

지난 6월 30일 작성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전수조사 결과 및 향후 계획 등 안내, 기획실-8035호'에 따르면 조사 결과 곡성군은 총 54건(조례 32, 규칙 16, 훈령 6)의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발굴하고 정비에 나서게 됐다. 곡성군은 해당 자치법규들에 대해 입법예고를 거쳐 8월에서 10월 경 폐지 또는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실 법무규제팀 담당자는 "군민들의 상식에 맞는 합리적인 자치법규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점검해 적극적으로 정비하겠다."라고 말했다.

곡성=양해영 기자